

데스크 시각



송기동 사회2부장

“전임 군수 때 안 좋은 일이 많아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선거 이후 공무원 조직도 안정되고, ‘지역이 살아야 한다’며 힘을 모으자는 분위기가...

“선거 후유증이 아직도 심하다. 군수가 선거법 위반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군수는 의욕적으로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보궐선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거리일 정도다. 일부 군수 후보자들은 벌써 선거활동에 나설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

4년 후 지역민의 박수를 받고 싶다면

6·4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이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집전을 벌였거나, 혹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살리기’와 ‘소통’, ‘현장 행정’, ‘혁신’ 등을 내세우며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단체장 키워드 민생·혁신

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지자체장 활동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도내 몇몇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았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고, 일부에서는 ‘딱히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이 무난하지만,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 1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14건의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두 사람은 5일 송해진

전북도 지사와도 만나 6년 만에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재가동키로 하며 광주와 전남·북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시와 화순군이 6일 동복면 이서적 벽 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상수원 보호 때문에 면발치에서 봐야했던 절경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도 최근 7년 만에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대립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앞으로 광양만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취임 100일 이제부터 시작

지자체장들의 공무원 조직과 지역민심 안정을 위한 탕평책(蕩平策)도 돋보였다. ‘부부군수’, ‘형제군수’로 대표적인 화순군의 경우 구종근 군수가 공모절차를 거쳐 전직 군수를 총합문화센터장(6급)으로 포용하고, 선거 때 자기편이 아닌 직원도 능력에 따라 승진시켰다.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지역화합을 위한 군수의 노력을 크게 반기고 있다.

선거 때마다 심한 후유증을 앓았던 해남군도 집행부와 군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관계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임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역점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지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 보은인사 문제도 시끄러웠다. 장흥군과 장성군, 무안군은 선거법 위반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상태여서 종결 때까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취임 100일’에 맞춰 일제히 새 비전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도 함께 뒤따를 것이다.

취임 이후 100일은 ‘임기 4년’을 채워갈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핵심 공약사업의 시동을 걸기도 쉽지 않은 터이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은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초심(初心)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구상한 정책을 ‘말로 뛰며’ 가시화시켜 4년 후 지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song@kwangju.co.kr

社說

민선 6기 100일 단체장 초심 되새겨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과 일선 시·군·구 및 의회가 오늘로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광주와 전남도가 이룬 성과는 무엇보다 상생을 찾았다는 점이다. 양 시·도는 지난 1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불필요한 경쟁 자재와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아울러 5일 전북도와 함께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낙후된 호남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와 호남연대 복원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무려 6년 만에 열린 시·도간 협력 논의는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일이다.

또 광주와 전남도, 일선 지자체가 민선 6기의 키워드를 민생과 혁신에 둔 것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민생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

와 환경 조성 등에 매진하는 것은 당위성 차원이기 때문이다. 상생과 민생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질 개선, 소통행정 등 혁신적인 노력이 전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임 단체장이 추진한 각종 사업 가운데 F1대회처럼 ‘열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거나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접어야 한다. 빛에 허덕이는 산하 공기업 등의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광주시의 경우 ‘행정실험의 연속’이라는 지적을 견뎌야 새겨 가시적인 결정과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산하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빚어진 논공정행 등 비판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단체장 취임 100일을 맞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관행과 권위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하는 ‘실사구시’의 행정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선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 답이 될 것이다.

막걸리판 된 축제장, 애들이 뭘 배우겠나

축제의 계절이다. 청명한 가을을 맞아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이 온통 잔치 분위기이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잔치. 저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가 여기저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주엔 특히 광주의 충장축제, 해남의 명랑대축제 등 굵직한 행사가 이어진다. 세월호 참사로 올 봄 행사가 전면 중단된 탓에 모든 축제가 가을에 집중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축제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술판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제2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에서는 일부 어른들이 분별없이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며 술냄새를 풍기는 바람에 축제장(養生夏場)의 순환적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논쟁의 결과를 떠나 분명한 건 사라져 가는 남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모색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이다. 졸업장과 취업을 위한 스펙만을 위한 학교 교육은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그러하기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고민에 추호(秋毫)의 게으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은편칼럼

추수동장(秋收冬藏)

가실 돌아보면, 씁 없는 달리기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경쟁 시스템에 길들여진 우리는 달려도 겨우 제자리를 유지하는 붉은 여왕의 역할에 빠진 듯싶다. 루이스 캐럴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죽어라 뛰어도 제자리인 현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다른 곳에 가기 위해 두 배로 더 빨리 달리는 것을 강요해야 하는 지의문이다.

끊임없는 증식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 구조는 어찌 보면 갈 풀라니가 말했던 ‘악마의 맷돌’처럼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지도 모른다. 이럴 때 본래의 길이 하나만이 아님을 생각해 보는 것은, 잠시 길에서 벗어나 현실을 객관화하여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재작년 5월, 이 자리를 빌려 딸아이의 늦잠에 대한 소회를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9시 수업’에 대한 찬반 논란을 보며 아이들의 생체 리듬과 수업 시작 시간의 괴리를 다시금 고민해 본다. 물론 학교의 자율성 침해, 맞벌이 부부의 애로 및 생활교육의 문제, 새벽반 학원의 문제, 고3 수험생의 혼란 등 현실적 문제가 녹록

하지 않음을 잘 안다. 다만 본래의 취지가 아이들의 아침 식사와 수면권 보장에 있음을 염두에 둔 생각이다.

나이가 본질에 맞는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당위성이다. 이미 미래학자들은 20년 내에 현존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으며, 그 리스트에는 전문가, 회계사, 경제학자에서 비행기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지적 노동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KAIST 심현철 교수팀은 ‘조종사 로봇’으로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조종하였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의 공통점은 컴퓨터(로봇)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은 과거에 정해진 방법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이기에, 이런 직업을 위한 대비를 학교교육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변화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다각적 소통을 통해 기꺼이 학교교육이 변화해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

서 ‘9시 수업’에 대한 논쟁이 학교교육의 방향성 탐색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없다’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답습하거나 반복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현행 방식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한 법이다. 그럼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내는 학교교육도 현행 제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동장(冬藏)의 완성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에 내보내 춘생하장(春生夏長)의 순환적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축제

70~80년대 추억을 테마로 한 축제 본령에 충실하면서도 광주의 새로운 상징물인 문화전당의 주요 콘텐츠가 될 아시아 가치의 축제를 축재 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키는 등 외연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면서 충장축제와 문화전당은 각각 광주를 상징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아이콘이 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그 이름에서 말해주듯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미래의 아시아 문화를 창조해내는 아시아의 문화발전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문화 표현이나 교류의 기회가 부족한 아시아 문화권 사이에 교류의 길을 열어주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연대와 발전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접에서 문화전당 건립사업은 기념비적인 국책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 아시아문화를 융합하고 다시 역동적 에너지를 곳곳으로 발산하는 구실을 할 문화전당이 아시아 민주주

의를 촉발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대한민국 광주에 자리 잡게 된 것 역시 우연의 일치라 믿어넘어 어떤 수명감과 같은 광장만 만남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듯 문화전당 완공시기에 맞춰 열리는 올해 충장축제는 그 역사적인 개관의 의미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문화전당의 가치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는 등 체계적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데 특별한 주안점을 두었다.

5·18광장에는 세계 전통악기, 의상, 다류의상 등을 체험하는 세계문화체험장이 들어서고 또 10개국 200여명의 세계 민속 문화 공연팀이 펼치는 세계 문화예술 공연과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글로벌 가족 한마당이 새롭게 선보이는 등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축제로 재현하는 데 남다른 공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세계 음식문화카페가 운영되고 주한 외교사절 20여명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문화전당 시대를 앞두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발돋움하는 충

장축제의 면모를 대내외에 알리고 문화전당의 의미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축제 속에 그대로 녹여냈다.

사실 2004년 충장축제의 등장과 함께 공사를 시작한 문화전당은 그 자체가 축제 콘텐츠이고 배경이자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락해가던 스페인의 빌바오가 축제와 미술관으로 새로운 부흥의 토대를 마련했듯이 문화전당 완공과 함께 2막을 새롭게 열어가 충장축제 역시 찬란한 문화의 등불을 점화해 정체성을 유지시켜가는 한편 생산적인 교류기반을 구축해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화전당과 충장축제가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함께 걸어갈 아름다운 동행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끄는 것도 바로 희망의 공유 속에 광주가 벅찬 환희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감동을 미리 경험하는 기시감을 느끼고 광주의 상생이 가져다 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깊은 신뢰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



노희용 동구청장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당 콘텐츠의 또 다른 표현인 충장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 태동한 충장축제가 문화전당 건립 논의가 한창이던 2004년에 함께 출발했다는 역사적인 맥락과도 관계가 깊다.

충장축제는 지난 10년이라는 연륜 속에 추억의 7080라는 독특한 테마로 아시아 거리 예술축제로서 끊임없는 진화 과정을 거쳐 오며 자연스럽게 문화 전당이 지향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행보를 걸어왔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독(毒)은 예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암살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암살자들이 독을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효과가 지연되면서도 지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암살자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의혹뿐이다.

둘째는, 대부분의 독은 검출되기 어려운데다 사건 발생 이후에는 밝혀내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종류의 독은 뇌출혈을 비롯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비슷할 증세를 보인다.

마지막 이유는, 독을 주입할 수 있는 기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함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최고 권력자들은 남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 독을 피했다. 중국의 대다수 황제들은 ‘시산태감’이라는 직책을 두어 음식을 먼저 맛보게 했다. 한 끼 식사도 128가지 음식을 차려던 청나라의 서태후(西太后)는 독살을 면하기 위해 매일 다른 요리를 먹었으며, 같은 음식도 세 손가락 이상 뜨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왕을 어릴 적부터 모셔온 사람을 ‘기미상궁’으로 정하고 왕이

음식을 들기 전 검식(檢食)을 하도록 했다.

최근엔 나치가 절대 권력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의 독살을 막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검식관으로 지정, 매일 아침 히틀러가 먹을 음식을 미리 맛보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독일만 ‘기미상궁’인 셈인데, 당시 검식을 했던 한 여성은 “음식을 먹고 뱀이 이상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 개처럼 울곤 했다”고 말했다.

남의 소중한 목숨을 도구로만 바라보는 권력의 무자비한 속성은 어쩔 수 없다. 다만, 매일 목숨을 걸고 매일 울음을 삼켰을 조선의 기미상궁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홍형기 경제부장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